

2018 군포문화예술워크숍



2018 군포예총 워크숍

1
2018년 11월 28일(수)~12월 2일(일) 3박5일 군포 예술인 워크숍을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났다. 군포예총이 생긴 이래 처음 시도된 해외 워크숍이다. 예총 8개 지부(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가 모두 참가한 이례적인 워크숍이다. 크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약속시간에 맞춰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40여명의 미소와 설레임을 마추했다. 예총본부에서 센스 있게 마련한 김밥과 물(저가 항공은 기내식이 없다고 해서)을 배급 받아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하는 저녁식사는 함께 함으로 가능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새벽 2시쯤 도착한 호치민 탄손넛공항, 흑치고 들어오는 열대 기후에 걸땀을 하나씩 벗어두고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올랐다.

2
아침을 먹으려고 내려간 호텔 식당, 피곤이 가시지 않은 부석부석한 모습의 미소가 여기저기 기분 좋은 아침인사를 나눈다. 호치민에서의 첫날은 호치민 하이라이트 시내 관광이다. 관광버스를 타고 가장 먼저 들어온 호치민의 아침 풍경은 셀 수 없이 많은 오토바이 행렬이다. 도로를 가득 채운 수많은 오토바이와 각종 차가 신기하게도 물 흐르

듯 자연스럽게. 거리의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사람들, 카페를 차지하고 있는 무료한 눈빛의 남자들, 팔럭이는 붉은 베트남국기, 베트남 통일의 아버지 호치민 사진, 이런 것들이 첫 날 아침을 맞이하는 풍경이었다.

호치민 전쟁 박물관, 호치민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뮤지컬 미스사이공(사이공은 호치민의 옛 지명)으로 인해 조금쯤은 로맨틱하게 와 달았던 전쟁이었다. 사이공여자 김이 불렀던 I Still Believe, 조수미의 노래로 휴대폰에 담아두고 가끔 듣는 노래다. 해서 호치민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호치민 여행의 기대를 가지고 들었던 노래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호치민의 전쟁 박물관은 나의 이런 로맨틱이 얼마나 어이없었는가를 단번에 깨우쳐 주었다. 전쟁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한 장소, 참으로 가슴 먹먹해지는 곳이었다. 베트남 전쟁 박물관은 과거 미국과 수교하기 전 '미군전쟁범죄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박물관에 있는 미국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서양인(모두가 미국인은 아니겠지만) 그들에게 자꾸 눈길이 갔다. 전쟁박물관 곳곳에는 베트남과 민간인학살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사실적으로 전시하고 있



었다. 너무도 사실적인 사진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끔찍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0만 명의 전투병력이 참전했던 현황판도 보였다. 까마득한 예전에 인기곡이었던 가수 김상희의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과연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가 있는가? 전쟁은 죽어간 많은 사람들과 파괴된 환경만 남지 않았는지, 제발 싸우지 말고 살자. 예총 회원들 역시 생각이 많은 얼굴로 전쟁의 참상을 뒤로 했다.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인 거대한 삼각주 메콩델타의 대표도시 미토로 이동하는 중간, 한국문화원에 잠시 들러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외국에서 보는 우리 것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은가. 미토 선착장 도착 후 통통배를 타고 유니콘 섬으로 이동해서 미토현지특식 코끼리귀생선(Elephant ear fish)이라 불리는 생선과 라이스페이퍼 등의 현지식을 먹었다. 이섬은 관광객을 위해 최적화 된 섬인 듯 했다. 정해진 코스대로 점심을 먹고, 산책하듯 숲길을 걸으면 토속적인 작은 상점들이 지갑을 열게 하고, 갈대집 지붕에 들어서면, 각종열대 과일을 탁자에 먹기 좋게 진열해 놓고 여자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공연 도중 현지인이 꽃바구니를 한 개 탁자마다 올려놓았다. 팁을 넣은 그릇이었다. 아리랑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차마 그냥 나갈 수 없지 않은가. 마지막 일정은 미토셋강 투어. 보트를 타고 좁은 수로 양 옆으로 이어진 야자수 숲을 따라 내려 가다 보면 열대우림의 정취를 누릴 수 있다. 좁은 시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시원했다.

3

베트남 남부 최대의 해변 휴양지 붕타우로 이동거리가 긴 날이다. 가는 길에 구찌터널이라는 곳엘 들르게 되었다. 구찌터널 숲에 도착하는 순간 물기가 많은 습한 기운이 느껴져 유난히 더웠다. 베트남인들의 역사적인 아픔을 간직

한 곳이며 저항의 상징인 공간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프랑스 식민시절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베트남 전쟁 당시 거세지는 미군의 공격에 깊이 약 8m, 길이 약 250km에 해당하는 땅굴 터널을 만들었다고 한다. 미군이 터널의 존재를 알고 고역제, 융단 폭격 등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게 됐다. 지금은 베트남 국민의 자부심이자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 했다. 현재 구찌 터널 중 벤딘과 벤즈억 동굴 등 약 20km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이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있다. 좁은 입구를 확장했고, 내부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 곳곳에 상황판과 비디오를 상영한다. 내부에는 부엌, 식당, 침실, 치료실, 학교, 심지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산소까지 설치되어 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환기 시설도 마련해 두었다. 자연물을 이용하는 그들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트남 남부 최대의 해변 휴양지 붕타우에 도착한 우리는 저녁식사를 마치기 바쁘게 워크숍의 하이라이트인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교육이 시작되었다. 장석기 전예총회장님의 발제로 시작된 교육은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문화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의 생산과 향유의 바탕. 문화역량 구성요소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봤다.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요소는 공감, 소통, 관용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우리는 이런 비전을 두고 전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Let's Think And Talk 시간에는 예총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예술을 하는 이유? 예술인의 모습? 어떻게 해야 문화 예술인들이 사명감과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에 대해 각 지부별로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곳에서 토론한 여러 현안들이 실질적인 면에서 반영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아침을 먹고 바로 봉타우 하이라이트 시내관광(티우별장, 예수상, 닐바나사원)을 하러 나갔다. 프랑스 총독의 별장으로 지었다는 티우별장, 오래 된 천리향 나무가 많아서 향기로운 공기가 가득했다. 떨어진 꽃잎을 의식하지 못하고 밟고 가는 이, 피해 가는 이, 몸을 구부려 줍는 이가 있다. 주운 꽃잎을 어쩌나 하고 봤더니 역시나 귀 뒤에, 머리에 꽂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증 샷. 어딜 가나 꽃이 있는 곳엔 항상 이런 귀여운 꽃순이들이 있다.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등줄기로 흐르는 땀을 불편해 하며 올라간 별장, 창으로 내려다 본 해변의 경관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시원했다.

거인 예수상은 봉타우 반도의 최남단인 바이두아 해변의 언덕위에 있으며 예수상의 높이는 28m나 된다고 한다. 800여개의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아브라함 상 등 다양한 조각상들과 예쁜 공간들이 있다. 거인상의 내부로 계단으로 올라가면 예수상 어깨쪽에 발코니처럼 된 공간이 있다. 치마나 짧은바지를 입은 사람은 출입금지. 신발도 벗고 맨발로 올라가야 한다. 계단이 좁아서 서로 부딪히며 올라갔다. 어깨까지 올라가면 언덕 아래 전경을 볼 수 있다. 물론 아름다운 정경이었다. 언덕을 올라가며 땀이 비처럼 쏟아지는 경험도 함께 했다.

봉타우 시티투어의 마지막은 봉타우에서 가장 큰 사원이라는 닐바나 사원이다.

닐바나, 열반이라는 뜻이다. 1971년에 건립되어 봉타우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사원으로 사용되었다. 한 회원이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부처님이 잘 보관하고 계셔서 찾을 수 있었다. 눈을 감고 누워계신 부처님이 인상적이였다. 봉타우에서 호치민으로 다시 돌아와 호치민 시내여행의 필수 코스로 유명한 노틀담성당과 바로 건너편에 있는 호치민





중앙우체국을 관광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물로 유명 관광명소답게 노트담 성당 앞이나 건너편 중앙우체국 앞에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관광객으로 인산인해 사진 찍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노트담성당은 유럽의 성당처럼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중앙 우체국은 독특했다. 노란색 아치형 외관은 기차역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 했다는데 고딕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실내 중앙에 베트남 통일의 아버지 호치민 초상화가 웃고 있다. 중앙 홀에는 관광 상품점이 자리 잡고 한쪽에는 우체국 부스가 있는데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식사는 선상디너크루즈를 타고 저녁을 먹고 재래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공항으로 이동 3박5일 일정을 알차고 의미 있게 마무리했다.

예총 유사 이래 처음 시도한 해외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했던 예총회원들의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 진두지휘한 강희진 예총회장님, 온몸으로 애쓰신 김동균 사무국장께 감사사를 전한다.

기록 ; 이진옥

